

지방자치·종합

이견 못 좁힌 한미FTA, 일촉즉발 위기

정부, 오늘 비준안 처리 요청에 한나라 고심…野 반발

원내대표 합의 도출 실패·ISD 토론회 무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비준안 처리에 나서려는 여당과 결사저지하려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31일 열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첫 번째 충돌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간 야당에 강하게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 처리, 농어업 피해 대책 보완 등에 있어 일부 진전을 보긴 했으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 미국과의 재자협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30일에도 비공개 오찬회 등을 갖고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 이던 여야정 'ISD 토론회'도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생중계 불발과 여권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문제 삼아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핵심 쟁점인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국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조항으로 기우에 불과할 뿐이라고 맞서

고 있다.

막판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의 '양보'나 '입장선택'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여당에선 '성과 없이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야당에선 협상과 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국이라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비준안 처리

를 위한 절차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맞서 야당은 결사저지를 위한 아권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전날 저녁 시내 모처에서 가진 당정청 회동에서 비준안의 '10월31일 국회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시위대 중 전국농민회 및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100여명이 국회 북문 등을 통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국회에 진입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67명이 연행됐다.

여야 간 막판협상을 지켜본 뒤 결

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권이 31일부터 외통위 의결 절차를 들어가 신속하게 처리한 뒤 내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시위대 중 전국농민회 및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100여명이 국회 북문 등을 통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국회에 진입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67명이 연행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FTA 핵심쟁점 절장토론회에 아당족 토론자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정부의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방침, 방송사 생중계 불발 등을 문제삼으며 불참하자 생각에 짐거웠다.

/연합뉴스

오늘 '지자체 인사청문회 도입' 토론회

광주시의회 행자위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1일 오후 회의 3층 행자위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남 행자위원장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는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소순창 교수가 맡았으며, 흥인화 광주시의원, 전남대 행정학과 조정관 교수, 광주일보 정재현 논설실장,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구제역·AI 선제대응, 동계전훈팀 유치

전남도·시군 협력방안 논의

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갖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도정 현안사항을 주진을 위한 시군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배행부지사는 특히 구제역과 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을해 주요 사업들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협조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감장체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 등에 대한 도와 시·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배행부지사는 특히 구제역과 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을해 주요 사업들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업무협약 체결, 협력방안 마련

▲전남도, 시군, 천안문화재단, 청양군, 서산시, 밀양시

▲전남도, 시군, 천안문화재단, 청양군,